

감정이라는 들판을 이성으로 경작하라

‘현대불교 입문’ (마츠다니 후미오 저, 정병조 前금강대 총장 편역)

15. 감정과 이성 ㉔

수(受)라는 용어는 현대의 우리들에게는 꽤이나 낯선 말이다. 그 뿐만 아니라 그 말이 가리키고 있는 점은 오늘날의 심리학의 분석과는 상당히 다른 분석에 기반을 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근(根)(감관)이 경(境)(외부사물)에 의해서 촉발(觸發)되며 지각(知覺)을 생겨나게 한다. 그것이 수(受)이다. 옛 경전은 수(受)에 대해 이 같이 설명하고 있다.

“비구들이여, 무엇을 말하며 수(受)라고 이름짓는가. 비구들이여, 영수(領收)하기 때문에 수(受)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무엇을 영수(領收)라고 하는 것일까. 낙(樂)을 영수하며, 고(苦)를 영수하며 불고불낙(不苦不樂)을 영수한다. 영수하기 때문에 수(受)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이것은 말하자면 오늘날의 심리학이 말하는 감수(感受)와 감정(感情)에 해당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감정을 동반하는 감수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며, 감수와 함께 일어나는 감정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언어개념으로서의 감수라는 쪽에 중점이 있으며 실제의 이미지로서는 오히려 감정이란 쪽이 훨씬 강하게 부각된다고 말할 수 있다.

앞에서 말한 경전은 ‘수상응(受相應)’이라는 제목의 경전 속에 있는 내용이다. 이 경전은 모두 수(受)에 관한 붓다의 설법이지만 거기에 설명되어 있는 것은 낙수(樂受) 또는 고수(苦受)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설명이다. 그리고 그 처리의 방법에 대해서는 요약하면, 감수 즉 ‘몸에 속하는 수(受)’는 이것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하더라도 ‘마음에 속하는 수(受)’에 의해서 괴로움을 받는 일은 피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에 있다.

이런 것을 석가모니 부처님은 ‘제2의 화살’이라는 말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은 결국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제2의 화살을 받지 않는다

‘과문(寡聞)의 범부(凡夫)’ 즉 이제까지 가르침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이러한 수(受)가 어떻게 하여 생기는지를 모르며 어떠한 성질의 것인지도 모르며 또, 어떻게 하면 불행에서 피할 수 있는가를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첫 번째의 화살을 맞으며 또 다시 두 번째의 화살을 받으면서 격정하며 서러워하여도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러한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다는 것일까. 그 대답은 이 경전의 후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유문(有聞)의 성제자(聖弟子)’ 즉 이스

승을 따라서 이 길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 또한 낙수(樂受)도 느끼며 고수(苦受)도 느낀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제까지 가르침을 듣지 못한 사람들과 다를 바는 없다. 그러면 어떠한 점에 있어서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구별이 있을까라는 것이, 앞에서 석존이 제자들에게 시험한 질문이었다.

세상에는 불도(佛道)의 수행자를 말하여 고목한업(枯木寒巖)과 같은 감수성(感受性)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붓다 그 분이 이미 매우 예민(銳敏)하고 미묘한 감수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된다. 그 제자들도 대부분은 젊고 훌륭한 감수성의 소유자들이었다. 민감한 감수성이야말로 불자(佛子)의 것이며, 둔감목석(鈍木石)같은 것은, 그들과는 가장 인연이 먼 것이었다. 다만 그들은 그 감수하는 바의 것, 감수와 함께 생기는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첫 번째의 화살이 맞았다 하더라도 또 다시 두 번째의 화살에는 맞지 않는 것과 같으니라. 그와 마찬가지로 비구들이여, 가르침을 들은 성제자는 고수에 접촉한다 하여도 격정하지 않으며 피로하지 않으며 서러워하지 않으며 가슴을 치면서 울지 않으며 어찌할 바를 모르지 않으리라. 그는 다만 하나의 수(受)를 느낀다. 그것은 몸에 속하는 수(受)이며 마음에 속하는 수(受)가 아니니라.”

붓다는 이 경전의 후반에서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성제자인 사람이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었다.

그들도 또한 고수(苦受)를 받으며 또 낙수(樂受)를 받는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이제까지 이 스승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오히려 더 민감하게 그런 것을 감수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수(受)라는 것이 어떻게 하여 생겨나며 어떻게 하여 소멸하며 어떠한 불행을 동반하며 또 어떻게 하여 그것을 탈피하느냐 하는 것을 이 스승의 가르침에 의해서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고수(苦受)를 받는다 하여도 그 마음속에는 불쾌한 생각을 갖지 않으며 노여운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의 마음은, 이러한 감정에 의해서 지배되는 일도 없으며 어지러워지는 일도 없으며 또 괴로움을 받는 일도 없다. 즉 이렇게 얹으므로 해서 그들은 두 번째의 화살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야 할 바를 알기 때문에 그들은 감정에 억눌려서 격정하며 서러워하며 가슴을 치면서 우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 선정에 들었을 때 취한 수인인 선정인. 잡념을 버리고 마음을 모아 삼매에 드는 수인이다. 참선할 때 기본적으로 취한다.

일 없다는 것이다.

이성에 의한 감정의 처리

이러한 감정의 처리 방법은 요컨대 이성(理性)에 의한 감정의 처리라고 말할 수 있다. 감정은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생(生)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을 억누르며 없앤다는 것은 올바른 삶의 방법이 아닐 뿐만 아니라, 또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붓다는 그러한 삶의 방법을 설명한 사람은 아니었다. 붓다도 또한 꽃을 보면 아름답다고 생각하였다. 시원한 바람이 불면 마음 상쾌한 것을 느꼈다. 고요한 숲 속에 살면서 마음 조용한 것을 즐거움으로 하신 일도 있었다.

그러나 감정에 빠지며 감정에 사로잡히며 감정에 억압을 받는 것도 또 결코 올바른 삶의 방법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감수(感受)와 감정은 인간의 전혀 수동적(受動的)인 영위(營爲)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수(受, vedana)라는 번역어(翻譯語) 그것을 단적으로 말하고 있다. 또 영위에 있어서도 격정(passion)이란 원래 ‘받는다’라는 뜻의 말에서 파생되었다. 외경(外境)의 촉발(觸發)하는 곳에 그대

로 좌우되는 수동적인 영위(營爲) 그것이 감정인 것이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불행 격정 슬픔을 동반할 뿐만 아니라 또 아직도 식물적 동물적 삶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인간으로서의 합당한 생활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인간은 외경(外境)에 대해서 수동적임과 동시에 또 능동적으로 움직인다. 자연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자연에 대해서 활동하며 자연을 정비한다. 그것이 인간에 합당한 삶의 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이성적(理性的)이란 의미는 이러한 인간의 능동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자연의 넓은 들을 경작(耕作)하여 논과 밭을 만드는 것도 이러한 이성과 그 지시 밑에서 영위(營爲)되는 노동(勞動)이지만 이런 것은, 또 인간의 속에 있는 자연에 대해서도 영위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겠는가.

감정 속의 넓은 들도 또한 이성과 노동(勞動)에 의해서 경작(耕作)함으로써 인간의 아름다운 논과 밭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한 뜻에서 이성에 의한 감정의 처리를 설명한 붓다의 길은 인간 형성의 본질적인 길을 가르치신 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읽는 유석질의론

(합허 스님 저, 송재운 교수 역)

佛法の 극의는 무엇인가

문 그대가 증거해 보여준 가르침이 매우 자세하니 진실로 송상할만하다. 그것을 배우면 다름이 있겠는가.

답 도(道)는 땅과 같아 더욱 갈수록 더욱 멀며, 도는 바다와 같아 더욱 들어갈수록 더욱 깊다. 그러나 그 문을 구하는 자는 계·정·혜(戒·定·慧)로부터 시작한다.

계란 무엇인가. 도적을 잡는 것을 말한다. 정이란 무엇인가. 도적을 포박함을 말한다. 혜란 무엇인가. 도적을 죽이는 것을 말한다.

잡기만 하고 포박하지 않는다면 도적이 도망하므로 잃고, 포박하기만 하고 죽이지 않는다면 후의 의심과 혐의에 곤궁하므로, 세 가지를 다한 이후에야 대장부의 능사(能事)를 다한 것이다.

또 더구나 의식(意識)이 법신(法身)을 해치고, 혜명(慧命)을 죽임은 도적 보다 더욱 심하여 다짐(多怯)의 간신(艱辛)한 데에 참으로 이르게 한 바이겠는가. 만일 이 세 가지를 정계·제어·끊지 않는다면 이른바 ‘법신·혜명’이 완전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계기(戒器)가 원성(圓成)하

(鼓舞)하고 풀어지게 하면 그 작용이 곧 흩어지고, 안정시키고 그치게 하면 그 작용이 곧 완전하다. 완전하여 증담(? 湛)하면 천심(天心)에 인계(印契)하고, 요동하여 파도가 일면 영상(映像)이 혼미해진다. 이것이 부처님이 일념만년(一念萬年)으로써 잡되게 쓰는 마음이 없는 까닭이다. 그리하여 외부 티끌이 요동해도 침범할 수 없으며 본지광광(本地風光)이 여기에서 발판하는 것이다.

혜(慧)를 달이라 말하는 것은 정각(正覺)을 말하는데 아반(夜半)에 올라 오묘함이 관·정(偏·正)을 겸한 것을 말한다. 무릇 사람이 삼계에 길이 잠들어 지혜의 눈이 없는 자는 이를 무명암흑(無明暗黑)의 큰 밤이라 말한다. 태어나도 오는 곳을 알지 못하며, 죽어도 가는 곳을 알지 못하고 가시밭길에 달리면서 도로를 알지 못하는 것은 중생의 자태이다.

지혜의 눈이 밝게 열리면 바른 길이 목전 있게 되어 무릇 이른바 ‘흑암의 큰 밤’이 반대로 정위(正位)가 되어 어둠이 밝음을 여의지 않으며, 밝음이 어둠을 여의지 않아 가리고 비춤이 동시(同時)로 함이 근본의 도이다. 제가 말한 ‘보살의 청량월(淸涼月)이 항상 법성공(法性空)에 노닌다. 중생의 마음이 물처럼 밝

깨달음은 들어 갈수록 더욱 깊어지니 道를 구하는 것은 戒·定·慧서 시작한다

고, 정수(定水)가 응정(凝靜)하여야 혜월(慧月)이 바야흐로 나타나 도를 닦는 공덕이 여기에서 나타난다. 부처를 배우는 순서가 진실로 이같은 법이다.

계(戒)로써 그릇(器)이라 말하는 것은 삼업(三業)을 말한다. 삼업이란 신·구·의(身·口·意)인데, 신이 같아 그릇이 되고, 구가 한 그릇이 되고, 의근(意根)이 또한 한 그릇이다.

만일 세탁하여 제거하지 않고 음식물을 저장한다면 얼음과 물이 비록 청정하나 혼탁함과 뒤섞이면 물로 씻는 공을 드러낼 수 없고, 반찬이 비록 아름답다 해도 더러운 냄비에 젖어 천형(祭事·잔치)의 쓰임에 공양할 수가 없다.

이것이 부처님의 참회로써 제거하고, 누워침으로써 태워버리며, 깨끗한 마음으로 물로써 씻는 듯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덮으며, 맹세로써 완전하게 하며, 원력(願力)으로써 견고케 한 까닭이다.

그렇게 하면 그릇에 담은 것은 물물(物物)이 청정하고, 그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법법(法法)이 무루(無漏)하다. 정(定)을 물이라 말하는 것은 한 곳에 그침을 말함이다. 마음은 물과 같아 고수

으면 보리가 그 가운데 그림자처럼 나타나리라 함이 이것을 말함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삼학(三學)이 상수(相須)하여 학도(學道)의 종시(終始)가 되는 까닭이다.

또 더구나 정(定)이 없는 혜(慧)는 곧 미친 것이며, 혜가 없는 정은 곧 어리석음이다. 어리석은 정은 근원이 없어 죽어 말라버릴 뿐이니, 이른바 ‘그림자가 나타나는 물’이 아니며, 미친 지혜는 곧 날으듯 흐르는 혜페(慧影)일 뿐이니, 이른바 ‘성공(性空)의 달’은 아니다.

‘어리석음’과 ‘미친’의 병행이 이보다 심함이 없다. 그러므로 학자가 여기에 있어서 정·혜를 평등히 지님으로써 오묘함을 삼아야 한다. 만일 평등히 지닌다면 수레가 두 바퀴를 갖추듯 같으며, 새가 두 날개가 있음과 같이 허공을 나르고 육지에 운행함이 자유롭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부처를 배우는 자의 접경(捷徑)이다.

《유석질의론》 번역 저본은 동국대 역경원이 1984년 발행한 것(송재운 교수 역)을 발췌한 것이다.

불경 라디오 成佛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요를 담은 SD 메모리도 재생이 가능합니다.

-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FM 버튼을 누르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FM버튼을 누르고 계시면 자동 주파수 검색됩니다.)
- 제품구성** 성불라디오 (가로12cm × 세로5.7cm × 두께2.5cm) + 4GB불경SD카드 + 1200AM배터리 + USB충전케이블 + 충전이달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배송비 포함)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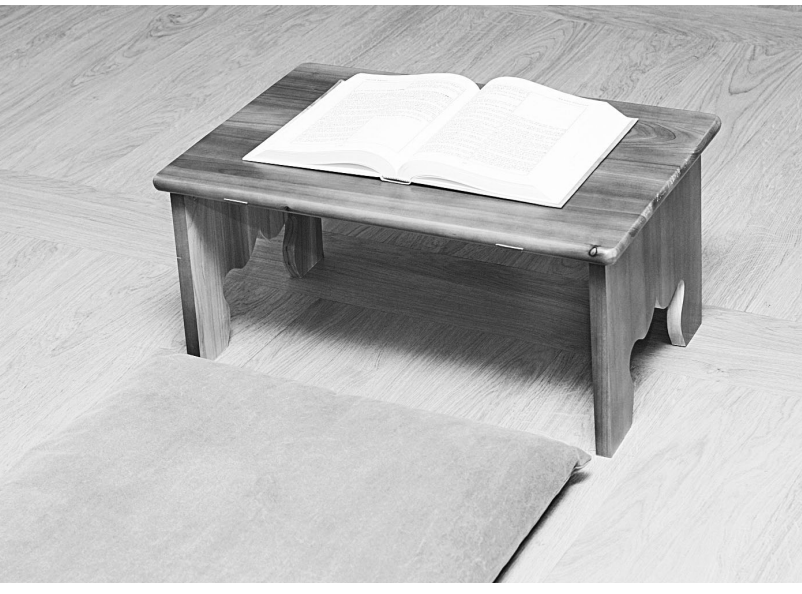
구입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 불경목록 (음원저작권협약)
- 정현의 삶을 위한 기도
- 1. 불자의 기도
- 2. 아침의 기도
- 3. 가나 평안을 위한 기도
- 4. 밤이 평안을 위한 기도
- 5. 명상음악
- 6. 행복한 기정을 위한 기도
- 7.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
- 8. 생일의 기도
- 9. 장영 염불
- 10. 자홍의 기도
-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 12. 반손으로 왔다
- 13. 사랑의 쓸매
- 14. 여름 별래는 겨울이 있음을
- 15. 가난은 죄가 아니다
-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 18. 향수를 버리면
- 19. 물의 과실을 부지는 마음으로
- 20. 일시에 눈을 감으면
- 향공스님의 염불시리즈
- 21. 광명전인 1
- 22. 광명전인 2
- 23. 개경계
- 24. 지경공덕분
- 25. 예불문
- 26. 이산 해원선사 발원문
- 27. 천수경
- 28. 반야심경
- 29. 화엄경 약한계
- 30. 법성계
- 31. 참선곡
- 32. 우리말 반야심경
- 33. 관음정진
- 찬불가
- 34. 삼귀의
- 35. 찬양합니다
- 36. 예불가
- 37. 참법가
- 38. 불교의 노래
- 39. 새 발우 환영가
-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 42. 사홍서원
- 43. 산회가
- 44. 관세음의 노래
- 45. 보현행원
- 46. 김로법을 전하자
- 47. 초파일의 노래
- 48. 마하반야의 노래
- 49. 성도제의 노래
-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 51. 홀로 피는 연꽃
- 52. 관세음보살 1약장
- 53. 관세음보살 2약장
- 54. 개경계
- 55. 이상정명분

현불샵 특가판매 편백나무 원목 경상(經床)

법회나, 경전강의, 개인기도 등 법당 및 가정에서 불자님들의 수행과 함께 합니다.

경상(經床)
불교경전을 얹어놓고 읽는데 사용하는 책상. 법당과 가정에서 기도와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책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자신은 물론 가족 모두가 불자가 되는 처음 시작하는 책상.



- 재질 : 편백나무
- 크기 : W60cm × D40cm × H28cm
- 특징 : 고급 접이식 경첩을 고정하여 사용이 편리합니다.
- 가격 : 개당 6만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